



보도 일시	2022. 12. 28.(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27.(화)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소영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유병훈 (044-201-7229)

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

- 환경부·해수부,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 수립 -

- 습지의 실효적 보전·복원·조성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 과학기반의 습지조사,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및 탄소흡수 가치 정량적 평가
-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이용 확대, 국제협약 이행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9일 이를 공개한다.

* 2022년 12월 20~26일간 서면으로 심의

○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관리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2018-2022)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 포함 172개국이 가입했고 14차 총회 주요 결과는 기후변화 해결 위한 습지의 보전·복원, 습지교육의 공교육화, 청년의 역할 강화 등임

-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 그간의 계획이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두었다.
 - 이를 위해 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하여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하여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 4차 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 * 연안습지 면적은 1998년 통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습지조사에 무인기(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습지의 생물종 관측에 시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 또한,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 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2022-2026)도 병행 추진한다.

* 블루카본(Blue Carbon): 연안에 식생하는 식물과 퇴적물에 저장된 탄소

②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22.12)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전략계획과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한다"라는 실천목표 채택

-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km² 대비 9.17% 증가한 150km²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km²에서 1,580km²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 습지보호지역 외 습지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3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습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습지생태축을 보전·관리하고,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습지 복원의 모범사례도 개발하는 등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 또한,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③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지역단위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습지 보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더욱 독려한다.

*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도시나 마을로, 전세계 17개국 43개 도시가 인증받음('22.12월 기준)

④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 습지의 보전·관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소통창구(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호지역별 보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습지 소통창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습지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람사르습지 등록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라며,
-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4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3. 습지 향후 5년 후의 달성목표.
 4. 전문용어 설명. 끝.

※ 별첨 :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보고서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유병훈 (044-201-7229)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박자현 (044-200-5313)





비전

건강한 습지, 풍요로운 혜택

목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

전략과제

추진과제

전략 1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 ① 생태계서비스·탄소흡수를 고려한 습지조사·연구
- ② 습지조사의 기법 고도화 및 시민참여 확대
- ③ 습지조사 결과의 활용 확대

전략 2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 ① 습지보호지역의 지속 확대 및 관리 강화
- ②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 구축
-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복원·조성
- ④ 습지관리의 역량 강화

전략 3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 ① 습지 인식 증진 및 현명한 이용 확산
- ② 지역주도형 습지 생태계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략 4

습지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 ① 습지 보전·관리 민·관 협력체계 강화
- ② 국제적 습지관리 협력기반 강화
- ③ 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 습지협력사업 추진

1.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내륙습지 면적의 국가 공식 통계자료 지정



'27년 지정

연안습지 탄소저장(블루카본) 통계체계 및 평가관리 체계 구축



'26년 구축

습지보호지역 조사에 시민참여 확대



3개소

'22년

8개소

'27년

2.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보호지역 면적 확대

내륙



연안



내륙 습지보호지역의 사유지 매입면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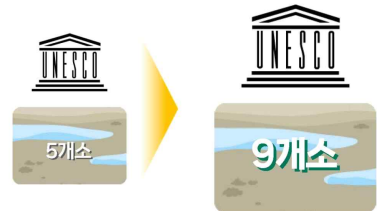
연안습지 복원면적



'22년

'27년

유네스코 갯벌 세계자연유산 관련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5개소

'22년

9개소

'27년

3.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정보 통합 포털 구축



'27년 구축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확대



7개소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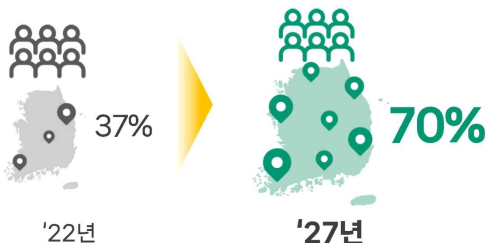


10개소

'27년

4.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내륙 습지보호지역별 보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22년

'27년

람사르습지 등록 확대



24개소

'22년



27개소

'27년

- (습지) 담수(민물),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 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함(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이고,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 (습지보호지역) 국내 습지 중에서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국가 또는 시도지사)
 -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는 5년 주기의 보전계획 수립·시행, 생태탐방·체험·교육 등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 (생태계서비스)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
 - 식량, 수자원, 목재 등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 (람사르협약)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 (약칭)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Wetlands),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97년 7월 발효). 우리나라는 '97년 3월에 101번째로 가입, 172개국 가입
 - ※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 등 24개소를 람사르습지로 등록